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7.60원 하락한 1,187.40원에 마감

4일 달러-원 환율은 미 경제지표 호조 및 호주 중앙은행의 매파적 금리동결에 따른 신흥국 통화강세에 연동되며 전 거래일 대비 7.60원 하락한 1,187.4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191.6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미 경제지표 호조를 반영하며 1,190원 초반에서 등락했다. 이후, 호주 중앙은행의 매파적 금리동결에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였고 원화도 이에 연동되며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환율은 롱 스탑에 따라 1,185.90원 까지 저점을 낮춘 뒤 소폭 반등하여 1,187.40원에서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189.4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91.01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91.60	1193.80	1185.90	1187.40	1189.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98.71	1099.57	1086.26	1087.07

금일 전망	중국 경기부양책 확대 ... 1,180원 초중반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중국의 대규모 유동성 투입 및 금리, 지준율 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1,180원 초중반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187.40원) 대비 3.35원 하락한 1,183.4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이틀간 약 1조 7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투입한데 이어 대출우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일 환율은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시장의 투심회복을 반영하며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 및 사망자수가 각각 20,000 명, 400명을 돌파함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지속세와 중국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으로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0.75 ~ 1187.7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862.7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35원↓
	■ 美 다우지수 : 28807.63, +407.82p(+1.4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0.3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80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